

우리말 성서 '관주'의 새 인식을 위하여

김태룡*

1. 머리말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성경 읽기를 신앙 실천 생활 가운데 기본적인 본분으로 삼고 마음 쓴다.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범 된 신앙 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말 번역 성서에는, 본문 말씀만 번역한 '본문 성서와 본문에다 참고될 사항을 성경 안에서만 가려내어 기호를 붙인 '관주성서'가 있다. 이것은 성경에 다른 덧붙임 없이 그 본문과의 관련성 내용을 살펴보게 한 편집체제이다. 성경을 죽 죽 읽어내려 그 뜻을 알기에 머무르지 않고, 앞뒤의 연관을 살펴가며 더 깊이 핵심에 파고드는 학도, 구도자적 정독자, 성실한 강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출간된 성서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신약 공인역을 1906년에 확정된 뒤, 구약을 완역하여 서둘러 성경전서 발간에 온갖 힘을 기울이면서 1909년에 이르러서는 '관주 성서' 발간 기획에 들어갔다. 이윽고 우리말 '관주 신약', '관주 구약', '관주 성경전서'가 출간되어 성서 반포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펼쳐졌다. 성서 독자의 환영을 받았다¹⁾.

그런데 성서공회에서는 애당초에 '관주' 낱말에 대한 어의(語義)를 밝힌 바 없이 한자어를 발음대로 옮겼을 뿐, 문제의식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서의 '관주'라는 낱말은 우리 겨레 안에 통념화된 개념의 일반용어가 아니고, 성서의 편집체제 성격을 차별화 하는 새 말인데, 그 정의(定義)를 확립하지 않은 채 지내 왔다. 이제라도 성서공회와 학계에서 관심을 모두어 성서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라는 명제 아래, 표준을 세워야 할 일임을 절실히 느낀다. '관주'에 대한 개연성 있는 개념의 새 인식은 성서 이해에 크나큰 뒷받침을 더해 주리라 믿는다.

이 글은 '관주성서'의 어의 곧 정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그 역사적 배경을 더듬어 밝히고, 외국어역 성서의 관주보다 간명하면서도 효율 높은 우리말 관주 성서

* 1949-1961년, 대한성서공회 출판실무 담당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원고 작성자.

1) 「閱休實記」 33쪽 참고.

출간을 바라면서 정성껏 살피려고 한다.

2. 관주 성서의 총체 고찰

2.1. 우리말 '성서 관주'의 발단

세계의 성서공회는 '성경 원문'을 각 족속의 말로 번역하여 출판하고, 널리 반포하는 일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번역에는 오로지 원문 그대로를 옮길 뿐, 교리·신조를 덧붙이지 않는 것이 절대적 기본정신인요 철칙이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름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귀띔해 주고, 길잡이 길을 터여주는 성의도 베풀어야 한다. 성서사업에 앞서가는 영국·미국 성서공회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관주 성서'를 내놓았다. 이에 우리 성서공회에서도 그 일을 본떠, 우리말 성서에 '관주'를 붙이는 준비를 서둘렀다. 그 경위를 찾아본다²⁾.

“성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주성경에 관심을 표한 것은 1909년 가을 회의에서였다. 이때 의장 스웨러(W.C. Swearer)와 서기 아담슨(A. Adamson)을 관주성경 소위원회에 임명하고, 단락구분이나 구두점 체계 등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어 이듬해 3월 회의 때에는 밀러와 베크로 하여금 영어 개정본(RV)의 「대학교 관주성경」(Universities reference)을 이용한 관주성경을 준비하도록 하고, 두 사람과 터너 주교(Bishop Turner) 및 번역자들로 관주성경 소위원회회를 재구성하고, 관주성경에 사용될 판독기호 체계(system of diacritic marks)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일이 급진전된 데에는 동양선교회에서 「부표관주신약전서」가 준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성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10년 5월부터 이익채가 성서공회에 고용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이익채는 영어가 ‘유창하고 진실한 교인’이라고 밀러 총무는 증언하였다.)

2.2. 최초의 두 갈래 관주 성서

2) 「대한성서공회사HI」 89쪽.

우리말 관주성서가 간행되어 실물이 세상에 드러난 사실은 첫째가 「부표관주 신약전서」(1910)요, 둘째는 「신약전서 관주」(1912)다³⁾. '부표관주'는 동양선교회에서 발행한 특수한 비공인본이요, '관주신약'은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교계 공인본이다. '부표관주'는 성결교회의 독자적 전도용으로, '관주신약'은 '순전한' 성서 번역에 한 걸음 발전된 체재로 엮어낸 것이다. 그럼에도 이 두 갈래의 성경 본문은 공인역을 공용하였으니, 지극히 지혜로운 판단이었다. 여기서 '부표 관주'의 특수성을 먼저 밝히는 일을 다루어야겠다. 이 저작은 본디 일본어로 일본에서 출간한 「符標新約全書」를 알아야 한다.

이우호 교수의 논문⁴⁾에서 알아보자.

“카우만은 1898년에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1901년 4월에 일본 동경에서 복음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성결교회를 시작하여 일본 사람들에게 '순복음' 곧 '4중 복음'(중생·성결·신유·재림)을 열심히 전하는 한편, 동경성서학원을 개설하여 많은 현지인 전도자를 양성하여 새로운 신자를 많이 얻었다. 그리하여 1905년에는 일본의 동양선교회를 조직하여 복음전도 운동을 조직적으로 일으켰다.

카우만은 새로 얻은 신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더 편리한 성경책이 필요함을 느끼어 1909년 5월 6일에 일본어판 「符標新約全書」⁵⁾를 엮어 내놓게 되었다. …”

2.3. 두 갈래로 이루어진 경위

「대한성서공회사」에 오른 기록⁶⁾과 이우호 교수의 논문⁷⁾ 기록을 간추린다⁸⁾.

1910년 동양선교회(성결교회 전신)가 「부표관주 신약전서」는 '부표와 '관주'가 붙고 두 빛깔로 인쇄된 최초의 한글성경이었다. ... 카우만은 한국의 성서공회에 공인역 1906년판 「신약전서」를 본문으로 하고, 일본어 「符標新約全書」의 체재를 그대로 따르되 '緒言'과 '符標, 設明'만을 한글

3) 이 글에서 「부표관주 신약전서」를 '부표 관주'로, 「신약전서 관주」를 '관주 신약'으로 약칭하자.

4) 「한글성서와 겨레문화」(성서와 겨레'로 약칭하자), 기독교문사 간 (1985), 203쪽.

5) 「符標」의 내용 설명은 뒤에 나올 「부표관주 신약전서」로 미룬다.

6) 앞 책의 99쪽.

7) “카우만의 「부표관주 신약전서」”.

8)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187쪽.

로 번역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는 마침 동경성서학원에 재학중이면서 일본어에 능통한 한국인 청년 이장하(李章夏)에게 그 번역을 부탁하였다.

카우만은 1909년말에 이미 한글로 부표신약전서 인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 성서공회의 밀러 총무에게 공인역 「신약전서」의 본문 사용을 허락해 줄 것을 12월 초에 요청하였다 ...

성서공회의 본문사용 허락을 받기 전에 이미 카우만은 10,000부 인쇄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

성서공회와 청원자 사이에는 4가지 조건에 합의하였다⁹⁾.

1. 성서공회들이 그들의 판본에서 채택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문에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않을 것.
2. 이 판본을 위해 만들 조판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킬보른씨가 보증할 것.
3. 모든 판본에는 성서공회들이 본문 사용을 허락해 주었으나 판본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내용의 만족할 만한 문구를 삽입할 것.
4. 책들은 성서공회들의 판매가격과 선교사들, 거래처, 일반에 대한 할인액과 동일할 것. 판매가격과 할인율은 성서공회들의 총무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

2.4. 「신약전서 관주」(1912)¹⁰⁾

1912년 12월에 공인역 한글신약 관주가 최초로 간행되었다.

23*15.5cm	621면	4호	6,000부	30 sen
-----------	------	----	--------	--------

이 책은 이익채가 1910년부터 1년 넘게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펴낸 영어 개역본 관주 신약전서를 기초로 작업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말 성서 관주는 비공인본이 먼저 나오고, 공인본은 버금으로 나왔는데, 기념비적 역사적인 옥동자 격인 이 책의 표제 표현방식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부표관주 신약전서」는 내용·성격을 관형격(冠形格)으로 「신약전서」 앞에 「관주」 낱말을 붙였고, 「신약전서 관주」는 내용·성격을 뒤에 붙여, 부제(副題)격으로 「신약전서 관주」로 되어 있다.

9) 「대한성서공회사」 II, 101쪽.

10) 「대한성서공회사」 II, 190쪽.

이 두 갈래 방식은 1926년 이후부터는 관형격 꼴로 앞에 붙이기로 통일되었다. 곧 관주신약전서·관주 구약전서·관주 성경전서로 일컫게 되었다.

2.5. 카우만의 '관조'론

「부표관주 신약전서」의 표제에는 '관주'라는 용어를 썼으나, 그 책 '서언'에는 '관조'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강조하여 썼다. 표제에는 성서공회의 방침을 거스르지 못해 묵종하였을 뿐이고, 속셈은 그렇지 않다는 개성 표현을 뚜렷이 밝혀,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

카우만은 그 '서언'에서 부표의 필요성은 '모든 제목에 적당한 성경구절을 찾기 쉽게, 관조는 공부를 흥미롭게 하려는 의도임을 피력하였다. 여기에 '서언' 전문을 베껴 놓는다.

서언

이 성경 중에 기록한 여러 가지 부표들은 교제가 성경 공부를 위하여 흥미온디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지라도 하여금 이 아리 기록한 모든 제목을 연구함으로 모든 사람의게 생명길을 지시할 때에 적당한 성경 구절을 찾기 쉽게 하고자 함이오며 또 겸하여 관조표를 붙친 것은 그 제목을 의지하여 공부할지라도 관조표가 없으므로 디조하여 보지 못하면 공부상에 지미가 업슬듯 하기로 관조표까지 서두에 기록하여 성경을 열심 연구하시는 형제들의 공부상에 만분의 일이라도 유익할 줄 믿고 출판하는 바이올시다 성경의 말씀은 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성경과 똑같은 다만 표와 관조만 붙칠 따름인디 관조는 영문 성경 관조를 만히 인용하였스오니 이 여러 가지 표와 관조로 말미암아 성경 중에 어느 책을 보시든지 중요한 제목들은 명백히 써다르실 줄 믿는 바이올시다 여러 가지 표들과 관조를 찾는 략호는 이 아래 붉히 기록하였스온지 상고하여 보시옵쇼셔

주강성후 일천구백십년 스월

미국 씨·이·카우만

'관조' 낱말에 대한 이용호 교수의 언급을 소개한다¹¹⁾.

'관조'(貫照)란 한자말인데 '貫珠'라는 표기와 같이 썼을 뿐이다. 그리고

11) 위의 책 222쪽 난하주 82.

貫珠라는 표기가 한자로 串珠라고도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달리 引照라고도 한다.

3. 두 대사전의 ‘관주’ 해설

우리 겨레가 ‘관주성서’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축복의 길이 열렸다. 그럼에도 ‘관주’란 무엇인가? 무슨 기능을 지닌 것인가? 이러한 전이해(전이해)가 없이 대하여 성서 독자로서 갖추어야 할 의무에 등한하였다.

이제 무게 있는 두 사전을 찾아 살펴 핵심 접근에 파고들어 보자.

3.1. 성서교재 간행사 간 (1979) 「성서백과대사전」

관주 Marginal Reference. “한글 개역에는 세로짜기(縱組) 위 아래 두 단으로 되어 있다. 개역성서 중 표지에 ‘관주 성경전서’라고 써어 있는 것이 바로 관주 성서이다. 관주성서는 성서 본문들 사이의 여러 가지 관련을 표시하는 참고 구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주는 성서 각 페이지의 위 여백과 상하단 사이에, 그리고 분량이 넘칠 때에는 좌우 여백에까지 기록되어 있다.

관주 표시 기호는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 ㅏㅑㅓㅕㅗㅛㅝㅟㅡㅣㅥㅧㅩㅪㅬㅰㅲㅴㅶㅸㅺㅼㅾㅿㅿ 이 상 스물 다섯 가지이다. 이 밖에도 ※+X 등의 기호가 더 첨가되어 있다. 이런 기호는 특히 시편 각 편의 제목에 나오는 인명(人名), 지명(地名), 사건들의 배경을 설명하는 관련 구절 제시에 사용되어 있다(참조: 시 88: 제목의 관주). 참고 구절을 나타내는 성서 책명은 약자를 사용했으며, 장절은 한자 숫자(一 二 三...十)로 기록되어 있다. 20과 30은 卅과 卌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과 절 사이에 공표(0)로 구분되어 있다. ‘삼삼 七0九는 사무엘상 7장 9절을 뜻한다. ‘쌍점(··)은 연이어 이용된 같은 책을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시 99:6의 관주 人을 보면 삼삼 7:9를 표시한 다음 계속해서 같은 책에서 다른 장절을 인용하기 때문에 ‘삼삼’이라는 책명을 반복하지 않고 쌍점(··)으로 대신한다.

관주 안에는 성서 각 책의 이름들 외에 ‘보,’ ‘비,’ ‘인’과 같은 약자들이 나타나 있다. ‘보’는 ‘보라’는 뜻이며, ‘비’는 ‘비교,’ ‘인’은 ‘인중’이라는 뜻이다. (줄임)

일반적으로 '보다'에 해당하는 관주는 주석적 의도(註釋的意圖)를 가진 것이다.

관주는 어떤 진술에 관해서 그 근거를 밝히거나 성서 자체내의 다른 곳에서 그러한 진술이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보다'고 지시한다. 예를 들면 창 5:1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라는 말이 있다. 여기 '형상대로'라는 부분의 관주에 창 1:26-27, 4:24, 골 3:10을 보라는 지시가 있다(엡 4:24; 골 3:10은 1964년판 관주에는 나오지만 1956년판 관주에는 빠져있음). 그 지시대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현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는 본문이 나온다.

이 구절은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성서 안에서의 최초의 언급이다. 창 1:26-27은 그대로 창 5:1의 진술내용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어서 엡 4:24; 골 3:10은 하나님의 협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신약성서의 이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성서로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비교'를 제시하는 관주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주제, 혹은 대조가 되는 개념이나 사상을 비교해 준다. 예를 들면 창 3:8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에 '비교' 관주 시 139:1-12; 렘 23:23-24가 붙어 있다. 창 3:8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지만 들리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비교' 관주는 야웨께서 사람을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야웨 앞에서 피해서 숨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한 시 139편을 비교하라고 한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음을,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도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유사한 주제를 비교시키고 있다. 렘 23:23-24 역시 하나님은 가까이에서나 먼 데서나 인간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

성서 안에는 많은 병행 구절이 있다. 신약성서 기자들은 구약성서를 자주 인용했다. 그런 인용이 있을 경우 인용구의 전거가 되는 구절과 인용된 구절 두 곳에 '인증'을 표시해 놓은 관주가 붙는다. 예를 들면, 마 1:23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에 '인, 사 7:14'라는 관주가 있다. 이 경우 이 본문은 사 7:14에서 인용된 것임을 나타낸다. 사 7:14를 보면 역시 '인, 마 1:23'이란 관주가 나온다. 그것은 이 구절이 신약에 인용된 것임을 나타낸다.

이 외에 다른 문맥과의 단순한 관련만을 말해주는 일반 관주가 있다. 이상 네 종류의 관주는 성서사전이나 어귀사전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석으로서의 기

능까지 발휘한다.”

3.2. 기독교문사 간(1980) 「기독교백과대사전」 관주 해설

관주성서 貫珠聖書 [영] Reference Bible

“관주 기호를 표시한 성서.

한국의 관주성서는 1910년 동양선교회(東洋宣教會: OMS) 선교사 카우만(E. C. Cowman)이 상해(上海)에서 출판한 「부표관주신약전서」(符表貫珠新約全書; Marked New Testament References)가 처음이다. 그는 이를 1916년 다시 일본의 요코하마(橫濱)에서 출판하였다. 이 성서는 국반판 830면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 위에 관주기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였으며 장(章)마다 다시 1부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부표(附表; Mark)를 사용한 것이 그 특징인데, 예를 들면 죄에 대한 내용은 붉게 ‘罪’라고 표시하였고, 심판에 대한 내용은 저울모양의 그림을, 회개에 대한 내용은 화살모양의 그림을, 사죄는 악수하는 모양의 그림 등을 그려 넣어, 읽으며 전도하기에 편하게 되어 있다.

1912년에는 이익채(李益采) 편찬의 「관주신약전서」를 합하여 「선한문 관주 성경전서」(鮮漢文貫珠新約全書)가 대영성서공회에서 발행되었다. 4·6판 376면으로 된 이 성서는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있으며, 관주 기호는 한글의 자 모음(ㄱ.ㄴ.ㄷ.ㄹ.ㅁ.ㅂ.ㅅ.ㅈ.ㅊ.ㅋ.ㆁ.ㅇ.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ㅇ)과 *.+. x등으로 본문 위에 표기하였다. 0표를 중심으로 장절을 구별하였고 ‘보’(보라)·‘비’(비교)·‘인’(인용) 등의 약자와 상동(上同)을 표시하는 ‘〃’, 의문의 ‘?’ 표시를 사용하였다.

1936년에 발행된 6판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3권은 개역(改譯)을 사용하였다. 1930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된 「관주신약전서」는 순한글로 20절판(二十節版) 621면으로 되어 있는데 관주기호는 「선한문 관주 성경전서」와 같다.

일제 말기에 일제에 의해 한글성서 발행이 금지되면서 관주성서 간행도 금지되었다.

해방 후 1950년 10월 대한성서공회에서 「관주 신약전서」가 국반판으로 출판되었고, 1953년에는 역시 대한성서공회에서 순한글판 「관주 신구약전서」가 4·6판으로 발행되었다. 이 성서는 본문 주위에 여백을 두어 필기하기에 편하게 되어 있다.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의해 개역된 성서로는 1959년의 「관주성경전서 개역 한글판」과 1964년의 「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

관주성서』와 거의 같으며, 모음에서 '으'가 빠지고 대신 '이'가 첨부되었다.”

위 두 대사전은 그 기획의 광대함과 광범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한국 교계에서 으뜸가는 두 사전이다.

이 두 사전의 '관주' 해설 표제어에 '관주(貫珠)로 되어 있다. '관주'란 낱말은 본디 漢字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 낱말은 중국어역 성경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 성서 관주의 표기에 두 대사전이 똑같이 한자(漢字) 적용을 그르쳤다. 이에 필자는 '貫珠'는 잘못된 적용이요, '串珠'가 바르다는 판정에 이르렀다.

이 '관주'라는 낱말은 성경 안에는 없는 말이다. 성경의 편집 체재에 따른 차별성을 나타낸 술어(術語)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漢字' 표기는 정확해야 한다. '관주'의 정의(定義)를 정립하지 못한 바탕에 뜻이 빗나간 한자 적용은 근본 뜻과의 괴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이 오도하였다. '貫珠'나 '串珠'나의 두 갈래길에서 바른 길을 찾아내는 것은 성경 이해에 보탬이 되는 것이니 찬찬히 뜯어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3.3. 貫珠와 串珠의 차별성

'貫珠'는 우리말에서 漢字語로 오랜 옛날부터 자리잡아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 국어사전마다 '시문(詩文)'을 끊을 때, 잘된 시구나 문장 곁에 동그라미를 치는 표'라고 공통된 개념어로 쓰이는 말이다. 성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인데, 성서 관주에 '관주(貫珠)라 함은 빗나간 표기다. 과녁을 맞히지 못한 적용이다. 그러니 더 말할나위 없이 잘못이다.

'串珠'가 바르다는 논리:

- ① '漢字 성경'(중국어성경)의 표기가 串珠임.
- ② 성서공회 당로자도 그대로 수용하였음.

(「閔休實記」 33쪽 一九一二年에 鮮文新約이 李益采 先生의 繙譯한 串珠를 添附하야... 串珠가 처음인만치...)

- ③ 「성서공회사 II」 198쪽, 204쪽(1926)에 '串珠' 표기로 출간한 기록이 있다.
- ④ 민영진 교수의 「국역성서 연구」(45쪽 참조)

최초의 우리말 관주성서는 1911년에 나온 이익채 씨의 「鮮漢文新約全書」가 관주(串珠)를 첨부하여 펴낸 것이다. 구약에 관주(이 때는 貫珠라고 표기하였음)가 첨가되기 시작...(줄임)

- ⑤ 성서공회「성서 전시 자료집」에도 「鮮漢文 관주新約·鮮漢文串珠舊約(1926),

⑥ 전무용 님 논문 '개역한글판 관주 검토' -1999.2 <성경원문연구> 68쪽 주7)에 '新舊約聖經文理串珠' 등은 관주의 애당초 표기는 '串珠'임이 분명하다.

이러함에도 우리말 성서의 '漢字' 표제는 '貫珠'로 발행되었다. 또한 학계에서나 교계에서나 串珠와 貫珠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이 모호하고 흐릿한 관념으로 내려왔고, 무감각에 빠져 동화된 채 거리낌없이 '貫珠'로 기울어져 굳어버렸다.

「성서공회사」 II. 683에 실린 '한국어성경 서지 목록'에도 '貫珠'로만 표기되어 있고, 학자들의 언급에도 '貫珠'와 '串珠'가 동의어인 인식으로 통념화 되어 있다. 어의(語義), 구명(究明)에 기준을 삼는 사전에서까지도 빗나가고 말았다. 미루어 생각하건대 串과 貫의 글자 뜻이 공통되는 점이 많음에 있으리라.

한자사전(漢字字典) 여럿을 뒤적여 본다.

貫: 꿰 관, 돈 꿰미 관, 꿰뚫다, 관통하다, 꿰뚫어 통달함, 연속하다, 엮전을 꿰던 꿰미.

貫: 꿰 관, 꿰 천, 꿰미 천, 꼬챙이 곳, 꼬치, 꿰다, 잇달아 꿰다, 꿰뚫다, 끈으로(실로) 꿰다, 많은 구슬을 한 줄로 꿰다 연결하다

이처럼 글자 뜻이 서로 많이 상통하는 연유로, '貫珠'와 '串珠'도 뜻이 같은 개념으로 통용되는 것이라 치부되고 말았다. 貫珠와 串珠는 그 고유개념의 형성의 시기와 동기가 다름을 분간치 못하였음은 아쉽기 그지없다. 貫珠는 시문(詩文)에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인 한자어요, 串珠는 기독교문화가 접목된 이후에 성서에 관하여 수용된 한자어이니, 동의어(同義語)가 아니라 이의어(異義語)인 새 술어(術語)로서 말뜻과 표기에 차별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다루어야 한다.

현재 수많은 국어사전 어느 하나에도 '관주(串珠)'의 표제어가 없다.

4. 성서 관주에 관한 문헌

이 문헌들은 나 나름대로 찾아본 저작·논술·비판의 글을 옮겨, '관주'에 관한 개관·견해를 더듬어보기로 한다. 그 순서는 활자화된 차례를 따른다.

4.1. 민영진 (전 감신대 교수)의 “貫珠의 性格”¹²⁾.

12) 「國譯聖書研究」 45쪽, 성광문화사 간(1984) -이 논문은 「기독교사상」 1980년 5월호에 발표하였음.

이 논문은 '관주'에 관하여 내용·성격을 분석하고, 연구과제를 제시, 독자적 견해를 펼쳐 우리말 '관주' 연구에 길을 터 놓았다.

'관주(貫珠, 혹은 串珠) 성서라 하면 그것은 곧 전후참조(reference) 표시가 되어있는 성서를 일컫는다. 관주(貫珠)라는 말 자체는 시문을 끊을 때, 글이나 글자가 잘 되었을 경우 그 글자 옆에 치는 고리 같은 둥근 표를 일컫는 말이었다. 일본어 성서에서는 일찍부터 인조(引照)라는 말을 쓰기도 했다. 우리말 번역 성서에서도 '관주성서'라 하여 일찍부터 전후참조(前後參照)가 붙은 성서가 나왔었다. 필자의 지식이 가 닿는 대로는 최초의 우리말 관주성서는 1911년에 나온 이익채(李益采)씨의 「鮮漢文新約全書」가 관주(串珠)를 첨부하여 펴낸 것이다. 구약에 관주(이때는 貫珠라고 표기하였음)가 첨가되기 시작한 것은 1926년에 나온 정태용(鄭泰容)씨의 「鮮漢舊約全書」다. 오늘의 '관주'성서와 같은 형태가 골격을 이룬 것은 1930년에 나온 「관주 성경전서」에서였다. 그후 1956년에 나온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에 와서 관주는 일단 마무리되었다. (줄임)

4.2. 강유중(총신대 교수) “우리말 성경의 관주”¹³⁾

(1) 관주와 관주 성경

“성경을 손에 펴보면 표제지, 목록 다음에 책명 약자 표가 있는 뒤, 곧 이어 본문이 나오는데 본문은 내리글씨에 각 페이지마다 위 아래 두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 이 본문 두 단위, 즉 상단 위와 하단 위 그러니까 상하단 사이에 많은 성구나 약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주(기호)라고 부른다. (줄임)

관주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관주(貫珠), 또는 관주(串珠), 인조(引照)라 했으며 영어로는 Reference(전후참조). 또는 Marginal Reference(가장자리 참조)라 했는데, 시문을 끊을 때 글이나 글자가 잘 되었을 경우 그 글자 옆에 붙이는 고리 같은 둥근표를 말했다.

성경에서는 본문 위에 붙여서 단어나 구절의 전후관계나 참고 구절, 본문의 인용 출처, 비교, 개념이해, 배경표시, 주석적인 이해.. 등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색인표시나 기호를 말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러한 관주기호가 관주성경이 나왔는데 일찍이 동양선

13) 「月刊教會」1984. 9.

교회(OMS)의 선교사 카우만(E.C.Cowman)이 1910년 상해에서 「부표관주신약전서」(符表貫珠新約全書:Marked New Testament References)를 내놓은 것이 처음이다(줄임).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익채(李益採)의 「선한문 신약전서」(鮮漢文新約全書 1911년)이고 1926년에는 정태용(鄭泰容)의 「선한문 구약전서」(鮮漢文舊約全書)가 나오므로써 오늘날의 관주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관주성경전서」(1930년)의 윤곽이 잡힌 것이다. (줄임)"

4.3. 이응호 “카우만의 「부표관주신약전서」에 대하여” 14).

이 귀중한 논문의 ‘맺는 말’을 먼저 살펴본다.

“확실히 ‘성결교회는 전도 본위의 교회이었기 때문에 신자들이 꼭 지켜야 할 찬송가와 성경책이 교단 성격에 맞는 책으로 엮어져 나왔다. 특히 ‘성결교회’를 창립한 카우만 선교사와 ‘한국성결교회’를 창립한 멤버(이장하 등)들은 교단의 성격이 전도 본위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써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로서 1910년 4월에 「부표관주신약전서」를 펴내게 되었다. 이 「부표관주신약전서」는 복음 전도를 본위로 하고 ‘4중복음’을 신앙지표로 삼고, 이단사설을 배격하는 순복음주의 교단에 가장 알맞는 성경이었다. 또한 이 성경은 한국에서 맨 처음의 부표 성경으로서 맨 처음 관주성경, 맨 처음 두 빛깔로 두 번 인쇄한 성경으로서 한국성경 번역사와 한국교회사에 획기적인 성경으로서 특별히 기록하여 널리 알려야 할 성경이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로 부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다루었다(12가지 조목).

죄, 심판, 회개, 사죄, 구원,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간증, 보호하여 지키심, 성결, 주의 재강림, 신유, 타락한 자에 대한 구절 조목에 낱말이 그림표를 붙이였다.

이 내용을 더 설명하였다.-

- ① 죄표를 붙인 구절 -40 ② 심판표 -36 ③ 회개표 -28 ④ 사죄표 -23
- ⑤ 구원표 -46 ⑥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표 -20 ⑦ 간증표 -27
- ⑧ 보호하여 지키심표 -32 ⑨ 성결표 -48 ⑩ 주의 재강림표 -35
- ⑪ 신유표 -27 ⑫ 타락한 자에 대한 구절표 -17, 모두 379구절.

14) 이응호(명지대학교수, 문학박사, 성결교신학대학 이사장 역임). “카우만의 「부표관주신약전서」에 대하여”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간, 1985. 이 책의 232쪽.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룬 관주에 대한 논문설은 위 책 세 곳에서 찾아본다.

222쪽

“이 성경은 한국에서 맨 처음으로 나온 관주가 붙은 성경이다. -카우만 선교사는 ‘성경을 공부하는 데에 흥미를 돋우고 성경 연구에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한글성경에 관주를 붙였던 것이다.’라고 「부표관주신약전서」의 ‘서언’에서 관주를 붙이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또 곁혀나 관조⁸²⁾ 표를 붙친 것은 그 데목을 의지하여 공부흔지라도 관조표가 업슴으로...”

※ 주⁸²⁾ ‘관조’(貫照)란 한자말인데 ‘貫珠’라는 표기와 같이 썼을 뿐이다. 그리고 貫珠라는 표기가 한자로 串珠라고도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달리 引照라고도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주’는 성경 본문 위에 낱말 구절의 앞 뒤 관계와 참고되는 구절, 그리고 낱말, 구절 등의 인용된 원전 밝히기, 비교 개념이해, 배경의 설명... 등을 나타내 보이는 여러 가지의 기호와 색인 표시를 말한다.”

225쪽

“이 「부표관주신약전서」에 표시된 관주는 조금도 흠잡을 수 없는 관주로서 우리나라 성경번역 역사상 처음 시도한 것이다.”

230쪽

“이 성경에 쓴 관주는 어느 성경을 저본으로 했는지 아직 밝히지 못했다.

‘관조는 영문성경 관조를 만히 인용하였스오니

라는 ‘서언’에 기록된 말로도 그 저본을 밝힐 수 없다... 다만 관주는 어느 특정된 성경의 관주만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지 않았고, 카우만 자신이 성결교회 특색에 맞는 구절을 골라 그것을 중심한 구절만 인용하였을 것이다.”

203쪽 ‘번역한 이’ 대목에서

이 교수는 이장하 목사가 번역자라고 증언한다. ‘이장하는 일본 동경성서학원에서 한국사람으로는 세 번째 학생으로 수학하였고, 일본어와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4.4. 이덕주 목사의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¹⁵⁾

15) 이덕주(기독교문사 「기독교백과대사전」 국내자료부장 역임, 감리교 목사),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간 1985).

‘관주성서’ (위 책 458쪽)

“...최초의 한글 관주서는 1910년 동양선교회(동양선교회)의 카우만(C.E.Cowman)이 편집한 「부표관주 신약전서」가 효시이다.

성결교회의 전신인 동양선교회에서 발행한 이 성서는 전도인을 위해 부표(符表)를 표시한 것이 특색이며 중요한 구절은 붉은 색으로 인쇄하여 한국 최초의 2색(二色) 인쇄 성서로도 유명하다. 1906년 발행된 공인역 「신약전서」를 대본으로 하여 편집된 이 관주성서는 표면상 카우만이 편집인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편집인은 한국인 이장하(이장하)로 최근 밝혀졌다.”(줄임)

“성서위원회의 공식적인 관주성서로서는 1912년 이익채(李益采)가 편집한 「신약전서 관주」와, 한글성서 중 최초로 본문을 상(上)·하(下) 2단으로 나누어 인쇄한 성서이기도 한 이 성서는 ‘관주’가 처음인 것만치 讀者의 歡迎을 맞아서 傳播가 多數하였으며(민휴선생실기 33쪽) 관주기호 및 표기법에 있어 이후에 나올 다른 관주성서의 선례를 마련하였다. 최초의 관주구약성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1926년 정태용·조용규에 의해 이루어진 「串珠鮮漢文舊約全書」이다. 이 성서는 이익채가 편찬한 「신약전서 관주」 및 유성준의 「新約全書鮮漢文」과 합하여 1926년 「鮮漢文貫珠聖書全書」로 묶여지게 되었다.”(줄임)¹⁶⁾

“국한문 성서와 관주성서는 이미 번역된 한글성서를 대본으로 하여 편집된 2차(二次) 성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편집을 주도한 인물이 선교사가 아닌 한국인이었으며 이들 성서는 주로 유식층과 학자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국한문성서는 당시까지 한글을 ‘언문’으로 취급하여 무시하던 유식층에게 성서를 읽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관주성서는 성서를 깊이 연구하려는 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종류의 성서는 한국 기독교의 상승화(上昇化)에 공헌을 한 셈이다.”

4.5. 나채운 교수의 “우리말 성경의 관주”¹⁷⁾

(1) ‘관주’의 의미

16) 같은 책 455쪽 “기타 성서”.

17) 나채운(전 장신대 교수), “우리말 성경의 관주” 「우리말 성경연구」 200쪽, 기독교문사 간 1990.

“우리말 성경의 본문의 어휘나 구절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난하주와 더불어 중요한 한 가지는 관주(貫珠 또는 串珠)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기문자(表記文字)에 따라 한글성경과 국한문성경 두 가지가 있거니와, 또한 관주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성경의 본문을 그저 읽기만 하는 데는 관주가 없는 성경으로써도 족하지만, 성경을 좀더 깊이 알고 연구하는 데는 관주성경이 크게 도움이 된다.

‘관주’라는 말은 본래 시나 문장을 끊을 때 글자나 문장이 잘된 곳에 치는 둥근표(권점 圈點)를 일컫는 말로서, 오늘날 성경에서 쓰는 말과는 그 뜻이 다르다. 우리말 성경에서 ‘관주’라고 할 때는 본문 가운데의 어떤 어휘나 구절의 의미 또는 내용이 다른 어휘나 구절과 관련되어서 이해에 도움을 주는 참조사항(reference 또는 cross-reference)을 뜻한다. 이를 같은 한자를 쓰는 중국어성경에서는 ‘附註’(부주)라 하고, 일본어 성경에서는 ‘인조’(引照)라고도 하여 우리말 ‘관주(貫珠)보다도 더 합당한 뜻을 나타낸다. 우리말로는 차라리 ‘關註’라고 쓰는 것이 나을 듯하다. (‘관주’라고 쓴 것은 중국어에 따른 것이다.) (줄임)”

4.6. 리진호 장로¹⁸⁾

리진호 장로는 성서 서지학자로서 우리말 성서의 전래, 번역, 출판, 반포, 서지 목록 정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역사적 사실을 밝혀, 각 시안의 비화·비사(秘史)를 발굴, 건전한 발전책을 제시하였고, 명쾌한 비판을 막힘 없는 필봉으로 성서 이해에 이바지하였다.

여기에 ‘관주’에 대하여 종래의 인식 부족에 일침을 가했다. ‘관주’ 낱말에 대하여 성서적 견지의 어의(語義)에 벗어난 엉뚱한 해석의 바탕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내려왔음을 개탄하였다.

“참조가 첨부되어 있는‘이란 뜻을 관주(貫珠, 串珠)라고 사용하여 왔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관주는 시문(詩文)을 뽑아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곳에 치는 동그라미’다. 시문을 심사할 때 특히 잘된 구절을 현대표현으로 하면 언더라인을 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혀 그 뜻이 다른 것이다. 성서 중에 특히 잘 된 구절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 비교, 인용한 구절을 표시한 것이니, 참조 있는 또는 참조 결들인 성서라고 하여

18) 이진호(성서서지학자, 감리교 장로) 「한국성서 백년史」 II 19쪽 기독교서회 간(1996).

야 마땅하다. 영어로는 With reference, 일본어로는 인쇼쓰끼(引照附)라고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¹⁹⁾.”

4.7. 「해설·관주 성경전서」(독일성서공회 판)

대한성서공회에서는 1997년 10월에 특별한 성서를 번역하여 출판해 냈다. 이 성서의 번역에 참여한 김창락 교수(한신대)가 출간 전에 소개 글을 썼다.(「성서한국」 1996. 9.) 이 소개 글은 성서의 ‘관주’에 대하여 큰 관심사로 새 인식을 북돋운 글이었기에 소개한다.

“이 책의 독일어 제명은 슈투트가르트 발행 「해설성경」(Stuttgarter Erklarungs bible)이다. 독일성서공회의 소재지가 슈투트가르트였기 때문에 그 지명을 ‘해설성경’ 발행처 표시에 수식어로 덧붙였다. ‘해설성경’이라는 그 명칭 자체만을 놓고 볼 때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즉 그것은 성경의 내용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부제는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붙여졌다고 볼 수 있다. …”

‘해설 성경’이라 함은 영어로 ‘Study Bible’이다. 스터디바이블이란 ‘학문용 성경, 학습용 성경, 연구용 성경, 해설성경’등으로 번역되어 그 속뜻을 자아냈다. 여기 독일어 원명에서 ‘해설’이라 한 것을 우리말 성서에서 ‘해설’에 ‘관주’를 덧붙인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번역이다.

「해설·관주성경」 책 머리말에서 한 토막을 인용한다.

“성서 해석의 과제는 성경이 본디 무엇을 말했는지를 밝힐 뿐만 아니라 그 말한 것이 본디 무엇을 뜻했는지를 알아내며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

‘해설’은 개인의 성경 이해도나 교리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끌어대는 식의 해설로 말미암아 성경의 본뜻을 가리우는 폐단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 ‘해설’로 미치지 못하는 바를 성경 안에서 관련성 있는 사항을 연결해 주는 ‘관주’는 건전하고 종합적인 ‘해설’과 더불어 두 기둥이 되어준다. 이것은 바로 ‘관주’는 성경 이해의 지름길이요, 길잡이가 되리라. 위의 머리말 맨 끝마무리를 인용한다.

“성경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은 안이한 생각으로 「해설·관주 성경전서」의 해설에서 퀴즈의 답과 같은 간단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거기에 제시된 모든 참조구절 및 관련구절과 용어해설을 일일이 살펴보는

19) 「한국성서 백년史」 II 19쪽 기독교서회 간(1996).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것이 성경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바로 그 방법이다. ...”

또한 이 해설·관주성경의 관주 표시에서 새로운 형식을 취한 점은 유의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관주의 성격 분석(보, 비, 인...)은 단락별 해설에 포함시켜 다루었고, 관주 표시로는 참조할 성경의 장·절만을 따로 각 쪽 하단에 표시하여 구별지었다.

우리 관주성경과 해설·관주성경의 관주 형식을 달리 하였으니 견주어봄직하다.

	관 주 성 경	해설·관주 성경
세기 1:1	본문: ㄱ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관주: ㄱ욥38:4-7 시 33:6, 136:5아 42:5 45:18 요1:1-13 행4:15; 17:24 골 1:16,17 히 1:10,11 11:3 계 4:11	본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 1:1	본문: ㄱ아브라함과 ㄴ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ㄷ세계라 관주: 창 22:18 갈 3:16 비, 롬 9:5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1 롬 1:3; 딤후 2:8

4.8. 전무용(대한성서공회 개정업무과장).

“그동안 간간이 성경의 독자들로부터 한글성경의 관주에 대한 문의가 대한성서공회로 들어왔다. 주로 누가 만든 것이며 언제 만든 것인가 하는 문의와, 관주의 내용에 대한 문의였다. 한글 관주는 ‘영어 개역 관주 성경’(옥스퍼드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것이고, 1926년에 성경 전체에 대한 관주가 「선한문관주성경전서」로 출간이 되었다

이 책은 1912년에 나온 유성준 이익채의 「신약전서 관주」에 정태용 조용주가 번역한 「선한문 관주 신약전서」를 합한 것이다) 이 관주체계가 1930년 구역 「관주성경전서」의 관주로, 현재 쓰고 있는 1962의 「관주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관주로, 1964년의 「관주성경전서 간이국한문 한글판」의 관주로 그대로 이어졌다. (줄임)²⁰⁾

20) 「성경원문연구」, 제4호, “「개역한글판」 성경의 관주 검토” 머리말. 대한성서공회, 1989. 2.

이 글의 각주(脚註)에 나온 참조 사항을 옮겨 소개한다.

ㄱ. 65쪽 각주 1)

「대한성서공회사」 II 89-90쪽 참조. 이는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하여 밝혀진 사실임.

ㄴ. 65쪽 각주 2)

「공회사」 II 204쪽 참조

ㄷ. 65쪽 각주 3)

1940년에 ‘관주신약 개역’이 나오지만, ‘개역’의 관주는 성경전서로 나오지 못하고, 한국교회에서는 1950년대 중반이후까지 계속해서 관주가 있는 ‘구역’이 읽힌다. 62년이 되어서야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 나온다.

ㄹ. 67쪽에 중국어 관주 성경에 관한 언급이 있다.

「舊新約聖經 文理串珠」 1912⁶⁾……

6) 「舊新約聖經 文理串珠」 1912년 상해 미국성경회, 본문으로 보아. 문리본 특히 EASY WENLI 라고 하는 문리역이다.

이 논문은 현재 쓰이고 있는 1962년 한글판의 관주의 오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1964년 국한문 판 관주가 지닌 차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성서공회에서는 그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역 개정판 성경’에 관주를 붙일 일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관주오류를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는 방법을 찾기 위한 작업의 실례를 추려 내고 있다. 그 가운데서 유념하여 다루는 대목을 추려본다.

- ① 관주의 내용이나 관주기호의 위치가 잘못된 곳들,
- ② 본문 속 관주기호의 위치의 변화,
- ③ 관주 개역 한글판과 관주 개역 간이국한문 판의 관주 위치의 차이,
- ④ 개역 개정판의 관주를 위한 단기·장기적 관주 개정작업 등을 위하여 현재의 관주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있다.

5. 관주 성경 서지 목록

5.1. 「대한성서공회사」 II. 683쪽

책명	발행연도	발행회
부표관주 신약전서	1910	동양선교회
신약전서 관주	1912	성서공회
부표관주 신약전서	1923	동양선교회
鮮漢文 貫珠新約全書	1926	성서공회
鮮漢文 貫珠舊約全書	"	"
鮮漢文 貫珠聖經全書	"	"
관주 구약전서	1927	"
관주 신약전서	1930	"
관주 성경전서	1930	"
관주 신약개역	" 1940	

5.2. 민영진 저 「국역성서연구」

- (37) 「申珠鮮漢文新約全書」 1911 이익채 씨가 관주를 첨부.
- (49) 「申珠鮮漢文舊約全書」 1926 정태용 씨와 조용규 씨
- (50) 「貫珠鮮漢文聖經全書」 1926
- (52) 「관주성경전서」 1930
- (56) 「貫珠鮮漢文新約全書」 1936 조선경성대영성서공회
- (69)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56
- (83) 「貫珠聖經全書 簡易國漢文 한글판」 1964 대한성서공회

5.3. 리진호 지음 「한국성서 백년사」 Ⅱ.21)

(112)	부표관주신약전서	1910	동양선교회
(127)	신약전서관주	1912	성서공회
(176)	鮮漢文貫珠聖經全書	1926	"
(177)	鮮漢文 貫珠舊約全書	1936	"

21) 실물의 표제를 모두 영인하여 제시함.

(181)	관주 성경전서	1930	"
(185)	관주 신약전서	1930	"
(186)	관주 성경전서	1930	"
(192)	선한문 관주성경전서	1930	"
(193)	선한문 관주성경전서	1930.9.20	"
(275)	관주 성경전서	1950	
(278)	관주 신약전서	1950	
(348)	관주 신약전서 개역한글판	1959	
(377)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62	
(383)	貫珠聖經全書 개역한글판	1964	
(385)	백과신약전서	1965	장시화 편집
(472)	貫珠聖經全書 개역국한문	1983	성서공회
(481)	관주 톰슨 성경	1984	기독지혜사
(483)	관주성경전서 개역국한문 (선교100주년기념)	1984	성서공회
(500)	뉴톰슨 관주주석성경	1985	성서교재간행사
(508)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86	성서공회
(516)	관주 성경전서(침례교용)	1986	성서공회
(536)	표준관주·해설성경	1989	도서출판 여운사
(623)	관주 구약전서 개역한글판 I	1994	성서공회
(624)	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1994	"

5.4.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성서공회 성서전시실 진열 자료)

※ 최초의 관주 성서로서는 1910년에 나온 「부표관주 신약전서」가 있다고 소개하고,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관주성서 목록만 게재되어 있다.

- 「신약전서 관주」(1912)
- 「鮮漢文 串珠新約全書」(1926)
- 「鮮漢文 串珠舊約全書」(1926)
- 「鮮漢文貫珠聖經全書」(1926)
- 「관주 신약전서」(1930)
- 「관주 구약전서」(1930)
- 「관주 성경전서」(1930)
- 「관주 구약전서」(1950)
- 「관주 성경전서」(1950, 1953)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62)

「貫珠 聖經全書 易國漢文 한글판」(1964)

「관주 성경전서 구역 한글판」(1980)

6. 성서 관주의 새 인식

이제껏 장황하게 늘어 '성서관주'란 무엇이나를 구명하려고, 전반적인 고찰을 펼쳤다. 이제 그 노력에서 얻은 바를 몽땅그려, 성서 이해의 지름길 찾기에 뜻대를 세울 단계에 다다랐다고 본다. '성서관주'에 대하여 새로이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하겠다.

① '관주'는 한자어이니, 그 표기 한자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 무분별하게 잘못 써온 '貫珠'를 버리고 '串珠'로 쓰는 새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② 串珠는 '구슬 꿰미'라는 말이다. 이것은 주제넘은 독단이 아니다. 1989년에 간행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찬 「중한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다. 곧

串珠: ① 구슬 꿰미 ② 한 줄에 꿰 것

구슬은 아름답고, 양증스레 귀엽고, 진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상징으로 쓰인다.

과연 성경의 구슬꿰미를 지니면, 성서 이해에 요긴한 것을 연결지은 귀중한 것임을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시를 성서의 구슬로 견주어 보자. 하나님의 계시는 성서에서 한가지 모습으로나, 어느 한 자리에 한정하여 나타나 있지 않다. 유일신 신앙의 인류역사·문화, 곧 생활전반에 오묘한 방법으로 표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서 전체 곳곳에 퍼뜨려진 계시를 연결지음은 그 근본 뜻을 파악하는 일에 가장 알맞는 길잡이가 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는 속담을 되새겨보게 한다. 아름답고 귀엽고 진기한 구슬이라도 한 알, 한 알의 날개보다는 정성껏 연결시켜 놓은 꿰미가 훨씬 찬란하게 빛나리라. 관주를 존중하는 새 인식이 있어야 한다.

③ 1964년판 「貫珠聖經全書」簡易國漢文 성경의 성경책명 약자표 범례에 "보... 보라 비, ...비교 인, ...인증 .. 위와 같음" 표시가 있다. 이것을 민영진 교수는 보좌관주, 비교관주, 인증관주, 일반관주라 하였고, 나채운 교수는 참조관주, 비교관주, 인용 또는 인증관주, 병행관주로 구분하였다.

'일반관주=병행관주'는 본문의 낱말이나 구절이나 다른 성경과 전체적 내용을 같이할 때의 표시이니 어구사전 구실을 한다.

‘보라관주=참조관주’는 앞 뒤 경위를 살펴 연결짓는 관주, ‘비교관주’는 유사한 주제를 지닌 경우에 비교해 보게 일깨워 주는 것이니, 보라관주와 비교관주는 주석의 기능을 한다.

‘인증관주’는 구약과 신약의 완전연결성, 성취성 신앙의 성서신학을 오롯이 표출하는 큰 의미를 드러낸다. 이런 뜻을 높여 필자는 신약에 구약 본문을 끌어들이는 곳을 낱낱이 헤아려보았다.

마-10회, 행-20회, 롬-33회, 고전-10회, 고후-6회, 갈-5회, 엡-2회, 히-25회, 벧전-5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끊을 수 없이 관련되어 있다는 성서관, 또 구약에 제시된 예징이 신약에서 성취된다는 성서관을 고조하고 있다. 관주는 성경의 진수를 제시한 보배로운 구슬끼미로 존중받을 구실을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참조나 비교로서가 아니라, 연결지어 관조(觀照)하는 새 인식이 요청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 요처요처에 흠뻑려져 있음을 올바르게 캐내어, 연결짓는 것이 성서 이해의 길을 고루는 필수요건인 새 인식이 있어야 한다.

7. 맺음말

이 글의 목적은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마련된 관주를 바탕으로 삼고, 성서를 정성껏 자세히 읽자는 것이다.

성경 말씀의 내용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다. 낱말의 개념파악도, 구절의 뜻 새김도 일상생활의 말 규준보다 어렵다. 곧 경전으로서의 뜻을 지니는 품위를 존중하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므로 이해하기에 쉽지 않음은 당연하다.

구약과 신약은 그 사이에 한결같이 꿩는 흐름이 있고, 서로 관련되고 상통하는 맥락이 있다. 그 계통과 질서는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체를 입체적으로 고찰하여야 바로 이해하게 된다.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결과는 반쪽밖에 보지 못한다.

낱말의 설명이나 구절의 뜻풀이만으로 그치는 이해도는 전체의 중심 흐름과 종합된 이해에 다가서지 못한다.

‘관주’를 쓸모없는 것으로 군더더기로 따돌리고 소홀히 여기는 자세는 아주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인식에 들쭉워 성경 말씀 이해에 거리끼는 바를 벗어버려야 한다. 진주알을 내던져 짓밟히는 사실을 무심히 지나쳐버림은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제 우리는 관주의 기능이 중용되어 마치 거칠고 억센 먹이를 먹고도 꾸준히 새김질하여 젓을 내는 반추동물의 노고를 마음에 새기자. 관주를 바탕으로 하여 성경공부에 파고들기를 권하는 바이다. 이러한 기본적 요건을 새롭게 인식하여 정성껏 자세히 앞뒤를 연결하여 살피면서 성경을 읽자.

끝으로 대한성서공회에 바라는 바를 공개 건의하고자 한다.

- ① 국한문성서 표지 표기에 串珠로 통일할 일.
- ② 관주 어의를 정립하여, 독자성을 지닌 어휘로 자리잡게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관주(串珠)' 항목이 오르게 강구할 일.

“1999년 8월, 여든세 번째 생일에 끝내다.”